

# 지혜의 말씀

불기 2566년 6월 / 통권 496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행대광사**



## 證道歌 (증도가)

가 사 철 른 정 상 선  
假使鐵輪頂上旋이라도  
정 혜 원 명 종 불 실  
定慧圓明終不失이라

가령 쇠바퀴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서 산산조각이 난다하더라도  
내가 깨달은 정과 혜는 원명해서 마침내 잃지 않다.

일 가 냉 월 가 열  
日可冷 月可熱이언정  
중 마 불 능 괴 진 설  
眾魔不能壞眞說이라

해가 차갑게 되고 달이 뜨겁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하더라도  
못 마구니는 능히 이 진리의 설법을 능히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 목 차

## 시와 불교의 만남 · 2

### 생각의 터 · 4

부처님의 농사 / 윤성스님

## 사자단상(四字斷想) · 8

지장본원(地藏本願) / 무경스님

## 대광사 6월 법회 및 행사 · 12

### 알림마당 · 13

백중기도 접수 안내

고맙습니다

20주년기념 특별 템플스테이



표지그림/원성스님

####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http://www.daegwangsa.or.kr)

#### ● 발행인 · 편집장 / 무경스님

#### ● 주 간 / 선화심

####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 부처님의 농사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남산에 계실 때였다. 공양 시간이 되어 ‘바라드바자’라는 바라문의 농가에 탁발을 가셨다.

바라드 바자는 탁발 오신 부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사문 고오타마여 나는 직접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김을 매고 거름을 주어 곡식을 거두어 음식을 먹습니다. 당신도 직접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두어 음식을 먹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드 바자에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며 나도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당신께서는 밭을 갈지도 쟁이질을 하지도 않고 풀을 매거나 거름을 주지도 않는데 어쩌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십니까?”

“믿음을 깊이 실천하는 것은 논밭을 갈고 다듬는 것이며, 지혜를 부지런히 닦아 어리석음을 물리치는 것은 좋은 씨앗을 심음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비를 펼침은 풀을 매고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악행을 애써 멀리하고 선행을 닦음은 물을 주어 곡식을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며, 깊은 사유로 옳고 그름을 잘 가리도록 이웃을 가르치는 것은 곡식을 거두는 일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의 농사는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하루도 쉬지 않으니 이보다 더한 농사는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은 바라드 바자는 합장하여 말씀드렸다.

“당신께서는 세상 제일의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음식 공양을 받으소서! 이제부터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문이 되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서는 당신의 일상 모습을 그에게 일러주셨는데 이는 그의 삶도 그러하기를 타이르는 훈요의 말씀이기도 했다.

바라드바자여!

“나는 늘 마음을 조절하여 화나거나 슬퍼하거나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부침이 없습니다. 또 몸을 잘 조절해서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여 언제나 편안하게 합니다. 또 호흡을 잘 조절해서 긴장되거나 처지게 하지도 않습니다.

잠을 잘 조절해서 많이 자지도 않고 적게 자지도 않아서 심신이 불안하지 않게 합니다. 음식을 잘 조절해서 허기가 지거나 포만감에 시달리지도 않게 합니다. 이렇게 심신을 잘 조절하는 것은 수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사항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드바자와 나누신 문답은 승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들어낸 ‘잡아함 경전경(雜阿含 耕田經)’에 있는 말씀이다.

출가인의 본분은 부처님 가르치심을 한마디라도 더 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우리는 것이다. 먼저 가르치심을 배우고 익혀야 하며 깊이 사유해서 잘 알아듣도록 설명해야 한다.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출가인의 절대 사명이다.

농사를 짓거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애쓰는 짓은 해서 안 된다. 출가인의 농사는 수행과 학습과 전법이다. 부처님께서 저 바라드바자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참선과 수행과 학습과 전법은 어떤 농사보다 훌륭한 농사며 소득 창출이다.

수행하고 학습하고 설법하는 그것으로 음식을 얻어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소득을 올리기 위해 열 올리는 짓은 속인이나 할 재물에 탐착한 욕망의 행위다. 그 시간에 한 권의 경전이라도 더 읽어야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정진해야 한다.

그래서 ‘출가인은 소득의 증대를 위해 노력해서는 안 된다.’ 하셨다. 단월들에게 얻어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며, 단월들에게 한마디 말씀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 공부하고 정진하고 기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스로 깊은 체험을 통하지 않은 깨달음은 생명력 있는 말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잘 알아듣게 설명하지 못한다. 깊은 사유와 실천을 통한 체험으로 이루어진 말이라야 살아 있는 말이 된다.

## 지장본원(地藏本願)

무경스님 / 대광사 주지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의 몸을 받기 전까지 잠시 영혼의 상태로 이승에 머물게 된다. 하지만 생전에 착한 업이나 나쁜 업 중 어느 하나를 너무 강하게 지었다면, 그 업이 복이나 죄로 돌변하여 곧장 하늘나라의 천신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지옥에 떨어져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절집에서 재사(齋祠)를 지내는 이유는 귀신이 되어서 이승에 집착하는 영혼이 더 좋은 세상으로 환생하게 하거나, 염라대왕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영혼이 부처님 뺨으로 짓값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승에서의 애착과 원한이 너무 강해 원귀가 되어버린 영혼이나, 이미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 중생의 경우, 어지간히 정성을 쏟아서는 구제하기 어렵다. 때문에 절집에서는 이런 가없는 중생들을 위하여 특별히 음력 5월27일부터, 하안거

해제 날(명상하는 스님들의 90일 수행이 끝나는 날)인 음력 7월 15일을 마지막 날로 맞추어 49일간 백중기도를 한다.

절집에서 백중기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부처님 제자 중 목건련 존자의 깊은 효심과 관련 있다. 목건련 존자의 어머니는 생전에 부처님을 비방하고 스님들을 못살게 구는 것은 기본이었고, 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살생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등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목건련 존자는 죽은 어머니가 어떤 과보를 받았을지 언제나 걱정이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태어난 곳을 볼 수 있는 신통력을 얻게 되자 가장 먼저 어머니를 찾았다. 예상대로 어머니는 삼악도 중 아귀 세상에 태어나 목이 타는 듯한 갈증과 내장이 찢어질 듯한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신통력으로 아귀가 된 어머니에게 다가가 음식을 건네 드렸지만, 어머니가 먹으려고 입을 벌리면 그 속에서 불길이 나와 음식을 태워버렸다.

부처님 제자 중 신통제일로 유명했던 목건련 존자였지만, 그의 뛰어난 신통력도 아귀세계에서 어머니를 구제할 수 없었으며, 잠시의 목마름이나 배고픔도 해결할 수 없었다. 목건련 존자가 부처님께 지혜를 구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 어머니는 생전에 큰 죄를 지었으니 여러 스님들께 복을 빌려야 아귀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안거가 끝나는 날 최대한 많은 스님을 초대하여 백가지 진귀한 공양물(음식이나 생활용품)을 보시하라”

이처럼 목건련 존자가 하안거를 마친 스님들께 백 가지 진귀한 공양물을 보시하여, 어머니를 아귀세계에서 구제한 날을 기념하면서 ‘백중날’이 시작된 것이다. 즉 본래는 백 가지 진귀한 공양물을 의미하는 한자 ‘백종(百種)’이 오늘날에는 ‘백중(百中 또는 百衆)’으로 변형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복(福)’은 살아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죽어서도 필요한 것이 복이다. 복은 자기가 짓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삼악도(지옥·악귀·축생)에 태어난 중생들은 고통을 받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승에서 정을 나눈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신 복을 지어주기를 갈망한다.

그래서 전국 사찰에서는 이처럼 삼악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대신하여 복을 지어주기 위해 일 년 중 백중기도 49일만큼은 평소에 읽지 않는 특별한 경전을 선택해서 기도한다. 대체로 <금강경>이나 <아미타경>을 독경하지만, 대광사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장경>을 읽을 예정이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때 말이다.

사실 무더운 한 여름날 <지장경>을 49일 동안 매일 3번씩 읽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경전 자체가 너무 두꺼워서 아무리 주문을 외우듯 빨리 읽어도 1시간은 족히 걸릴 뿐만 아니라, 처음 읽는 사람의 경우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그 내용이 무시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장경>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부담스러워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

이처럼 쉽지 않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백중기도 49일 동안 대

광사에서 <지장경>을 독경하는 이유는, 삼악도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해주는 데 있어 지장보살을 능가하는 존재는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도 일찍이 지장보살의 위대한神通력을 인정하시면서, “지장보살이 가진神通력의 위대함은 아무리 오랜 세월을 말해도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지장보살의 모습을 보거나 그 이름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진심을 담아 예배한다면, 태어나는 곳 곳마다 항상 부유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의 몸을 받거나, 하늘나라의 천신으로 태어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地藏菩薩威神力 恒河沙劫說難盡 見聞瞻禮一念間 利益人天無量事”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먼저 이승을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이 <지장경>을 읽게 되면 “죽어서 영혼의 상태로 있는 이들과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하고 증명하고 있다.

이처럼 지장보살님을 염불하고, <지장경>을 읽게 되면, 산 사람이 받을 복과 죽은 사람에게 돌아갈 복이 불가사의 하기 때문에, 대광사에서는 백중기도를 백세게 하는 것이다. 이는 신도님들께서 이름 올리신 모든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명복(冥福)을 대신 지어 드리기 위함이니, 불자님들께서는 간절한 염원과 견고한 신심을 가지고 양력 6월 25일부터 시작되는 백중기도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 ◎ 대광사 6월 법회 및 행사 ◎

- ◇ 6월 1일 : 초하루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6월 13일 :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6월 25일 : 백중기도 입재 오전 10시 설법전
  - ◇ 6월 22일 : 불교대학 1학기 종강
  - ◇ 6월 29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고맙습니다

### ♥ 군법당 후원

후원회 10만원

### ♥ 지혜의말씀 후원

강상원 20만원 양재봉 1만원 김용근 2만원 김정수 5만원

### ♥ 초파일 꽃공양

자비행 법안성 만법수 김로행 금강지 삼덕화 법계화 천수심 해명화 수안문  
 선명심 혜연심 묘덕장 김영진 수연화 원명지 남해영 이지운 진성화 무여심  
 원지심 안락심 정광심 무량성 원오해 박영순 진실행 홍방옥 고봉주 고태우  
 박동걸 김옥남 대각행 반야지 덕성심 수덕행 법성화 수선화 금강심 법연화  
 상현성 문정순 일현심 정진화 평등심 조재천 공미애 성도행 홍경자 정법행  
 길상화 광희심 한지민

### ♥ 초파일 공양

방지영 주영돈 이봉희 변창인 안종권 황상선 최경순 김주영 정병주 정병창  
 이현실 정윤규 박춘수 정봉기 이미정 이상명 공상섭 김유규 정현욱 황인섭  
 박종호 덕산과일



## 대광후원회

(2022.4.18.~2022.5.17)

이봉희 20,000	박성봉 50,000	김병문 20,000	배수진 30,000
홍승운 20,000	정진이 10,000	정대식 50,000	조한분 50,000
김경남 20,000	조인우 10,000	오현철 20,000	원광한의원 100,000
황두관 10,000	조우현 10,000	조연자 50,000	박진호 100,000
변창인 20,000	윤소영 20,000	강성진 10,000	(주)카텍 300,000
박수현 50,000	박미애 10,000	조한분 50,000	배동환변호사 10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 농협 355-0545-9595-03 대광사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백중기도 접수

- 입재 : 2022년 6월 25일 오전 10시
- 초재 : 7월 1일                    ■ 2재 : 7월 8일
- 3재 : 7월 15일                   ■ 4재 : 7월 22일
- 5재 : 7월 29일                   ■ 6재 : 8월 5일
- 회향 : 8월 12일 오전 10시
- 동참금 : 영가 1위당 2만원

### ※ 경전반 모집

경전반 수업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회주 큰스님께서 법화경 강의를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진해대광사 찬불단 / 다도반

###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다도반 : 매주 목요일
- 찬불단 :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545-9595



### ※ 신도님들의 협조바랍니다.

- 가족사항,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2021년부터 기제사비가  
영가 1위당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영가 추가시 5만원씩 추가됩니다.  
(예: 영가 2위이면 40+5=45만원)





## 20주년기념 특별 템플스테이

# \*라떼 템플스테이\*

- 참가대상:  
20/30대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부모(최대 4인)  
자녀(1983년 ~ 2002년 출생자, 신분증 확인함)
- 프로그램: 휴식형
- 참가비: 1인당 3만원





##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